

학생들의 신문, 생보일보 창간



▲ 2017년 국토순례 A팀, 우리들의 길동무!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좋지 않은 소식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세상에 그만큼 나쁜 일이 가득해서일까요? 그런데 생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 더 많은 이곳에서 생보일보를 창간하시는 것, 간담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생보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 소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이야기를 나눌 통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생보 일보를 발간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더욱 반갑습니다.

또, 지금까지 생보의 소식지나 학교 소속의 밴드, 페이스북 같은 SNS 페이지는 있었지만 학생에 의한 신문은 처음입니다. 그런 만큼 더 재미있고 우리들에게 공감되는 이야기를 담아내길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생보일보를 통해 더 풍성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017 총교 생기자 최현(11-2)

안녕하세요.
2017 생보 중학교 생기자 9사망 감신영입니다.
먼저 생보 일보의 창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처음에 생보 일보가 동아리로 창설된다고 했을 때 황금 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라도 축하의 글로 창간에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나 영광이고 기쁩니다.
생보 일보가 자랑스러운 생보의 다이나믹하고 유쾌하고 열한 학교생활을 잘 담아주시길, 또한 학생들의 작은 목소리도 잘 담아주시길 기대합니다.
항상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생보 일보 파이팅!
2017 중학교 생기자 감신영(9-사망)



▲ 2017년 국토순례 B팀, 우리들의 길동무



“생보 신문부의 시작을 축하합니다”

생보 신문부의 탄생에 축하합니다. 신문부 활동을 통해 생보인들의 생각과 예수 제자의 정체성이 잘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겨울 여행, 같이 모험하러 가는 것 같은 환한 앞길을 보는 여러분의 심정으로, 고소고소 영한 글들을 나누어주시길 바랍니다.

생보인들의 목적이 있는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과 고민을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동부들의 흔적들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 이진희 교장선생님
“생보 신문부의 시작을 축하합니다. 이 말은 1939년 영국의 작가 에드워드 리안이 그의 책 속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언론의 힘은 강로할 때 자주 쓰이는 말이지요. 저는 복싱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명성은 땀 속에서 나온다.”

땀을 흘리고서 삶을 하나님의 일로써 베풀어보아 자신의 생각을 조목(脚木)하고 사용하는 언어를 정교하게 다듬어서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도 예수 제자가 지라나기 때문입니다. 신문부의 활동을 통해서 모든 생보인들이 서로 글을 통해 신한 마음을 윤희하고 생보 배울 공동체의 정신을 함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써 내리려는 글이든 언어 속에 있는 예수 제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 기대가 됩니다.

생보일보는 생보중고등학교 내 학생 개별 동아리에서 발간하는 신문의 이름입니다. 동아리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간(日刊)이 아닌 주간(週刊) 신문으로, 연간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영칭의 간략함을 위해 부록어휘에 일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주간이라는 점을 명시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생보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담아낼 예정입니다. 생보일보에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22. 생보일보 편집장 박희은

반갑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서면으로 축하드리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크고 작은 소식들로 생보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신문부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생보의 학부모로서 생보를 바라볼 때 한 명 한 명의 생보인들은 기쁨이며, 자랑이며,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서로가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모습 또한 생보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을 나누고 크고 작은 소식들과 자식들도 나누어주셔서 아름다운 생보의 모습들을 그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보 신문부 파이팅!”
생사랑 부모 일동.
10학년 이혜민 오 승은주

말.말.말

생보의 모든 목소리, 기교
생물학교는 좋은 학교이다. 한국에 있는 일반학교에 비해 발전된 학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의견을 들려 '소통의 아쉬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다양함, 자유, 존중의 소통

우리학교는 소통을 하려고 노력한다. 최근에 교무실 앞에 소통할도 설치하고 선생님들도 언제든지 의견을 말하라고 하신다. 학부모님들도 생사상이라는 모임을 통해 소통한다. 그런데 소통의 창구는 많지만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느낄 때가 있다.

첫 번째로 선생님들이 적용하시는 교칙의 잦아 대가 제각각이라고 여겨질 때, 선생님들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어떤 선생님은 '괜찮다'고 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안된다'고 하셔서 종종 혼란스럽다.

생보인들의 공부법

가을을 열매 맺고 열매 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겨울행운에 대한 부담은 모든 생보인들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이 시기에 선배들의 조언이 필요한 생보인들을 위해 선배준(11학년) 선배와 인터뷰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고방식 것 같습니다. 일반 학교 학생들은 보통 학원에 다니는 반면에,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자기 주도 학습을 열심히 하니까요. 또 다른 차이점은 수업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반학교에서는 다 학원에 다니니까 대응 능력이 있는 경우도 많고 각자 공부하는 분위기가 강해요. 하지만 생보는 학교수업이 전부니까 수업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 11학년 2반 선배준

생보 칼럼

2017년 11월 9일자 MBN 뉴스에 '서울의 지하철이 외국인들의 관광 코스로 각광받고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음 열차의 위치, 도착 예상 시간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에게 친선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 거사는 그것이 중심이 아니었다. '프린트 어드바이저'라는 여행 정보공유서비스에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방법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여행의 '핵심 열차'로 추어볼 때,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내외국인을 포함한 부정승차 방법 같은 것은 4만 2천여 건에 달한다. 적잖은 건수이므로 실제 부정승차는 더 많을 것이다.

우리는 왜 학기를 열음으로 우리의 열매를 확인한다. 우리에게 열음은 무감각 영세시행이라는 과정을 통해 누구나 '열차'를 탔다.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Coram Deo)' 정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상징시킨다.
7학년은 처음으로 가을행운에 무감각 영세시행을 치렀다. 권려된 박시은-사망한 권려진 학생은 "선생님께서 개설 때는 긴장감이 더 높고 감시하는 느낌을 약간 받았다. 감독 선생님이 개설 때와 나가 개설 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7학년들도 이렇게 생보인으로서 '열차'의 열매를 맺어간다.

두 번째로 학생과 선생님들 간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 소통이 안 된다고 느껴진다. 의견 차이가 이어가져 갈수록 대화의 방과 후로 미뤄지거나 장소가 교무실로 바뀌는 것도 학생 입장에서는 어렵다. 더욱이 그 장소가 혼잡을 받는 생활실 옆 부수라던 식욕이 부당이 크다.

세 번째로 학생끼리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기가 어렵다. '공통회의'에서 다른 학생과 소통할 수 있지만 전술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형식적으로 끝날 때가 많다.

마지막으로 생보인들이 서로 소통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고 보일 때가 있다. 학생들은 자신과 관계없는 다른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빠른 해결을 바란다. 내 생각이 이것어 가장 큰 문제이다.
나는 이 일을 해결하려면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함과 자유가 있으면

공부하다가 슬럼프에 빠지신 적이 있으세요? 극복하는 방법은 없었나요?

- 사실 전 감정기록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공부는 항상 하기 싫지만요. (웃음) 그런데 하기 싫을 때 한번도 그걸 꼭 거언 할 때 없이 없애지 하기 싫을 때 그냥 한번 극복하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중에 엄청난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기 싫을 때 해보고,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TIP, 공부할 때 동기부여 받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공부 동기는 공부나 직업으로 목표하는 것이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정체확립을 못해서 공부하는 공헌된 책을 읽으면서 동기부여를 꾸준히 받아요. 그리고 목표를 잡을 때 너무 먼 미래에 대한 목표를 잡는 것보다 단기 목표를 조금씩 세워 실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먼 목표는 현실이 뒤에에 갈 안 되지만 단기목표들은 눈에 확 들어오게 되니까요. 또 의지가 약해서 혼자 공부하지 못해서 할 수 있었던 친구들과 내기를 하는 식으로 본인을 많이 이끌어내어 공부 잘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 지랄한 공부는 11학년 때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 나. 그 전에 열거한 할일들을 하면서 노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 학교에서 주어지는 과제들을 다하고 남은 시간은 신나게 놀고요! 열심히하러가 전까지의 공부에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효빈 기자

디, 존중하는 소통의 문화를 만들면 좋겠다.

9-복은 이지호

“말.말.말” 코너는 생보의 모든 목소리를 담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생보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계속해서 담아낼 것입니다. 다만, 생보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고 의견을 바랍니다. 자유로운 의견이 공동체 모두를 위한 사랑과 배려가 담긴 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말.말’ 코너가 생보의 의견을 나누고 이해할 수 있는 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생보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창간호에 소통의 아쉬움에 대한 글을 어떻게 실게 될 것 또한, ‘소통하는 창구’로서 신문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니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김민정, 양지혜 기자

‘열차’가 힘을 잃어가는 시대 ‘코람데오’, 생보에만 국한되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의 코람데오의 유효기간이 50분에 그치지 않는지 물어 봐야 한다. 코람데오의 유효기간은 우리가 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다. 무감각을 여행의 추억으로 삼는 외국인을 비난하게 앞서 우리의 ‘열차’를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열차가 힘을 잃어가는 시대이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부정직함을 거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기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 생보의 흐름을 역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흐름을 바꾸어 한다. 모든 일은 작은 큰 결단에서 시작한다. 살아서 사소한 부정직함부터 정직하게 바뀌어가는 생보인이 되길 소망한다.

"네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박수진, 정희담 기자

글로벌에 안근경 선생님의 편지

생물 밖, 생물 이야기 #1

신문부에서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로리엔, 소르벤의 근황을 지문으로나마 전하게 되었다. 먼저 여편 후에는 로리엔 선생님께서 생물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옮긴다. 로리 선생님은 생물에서 영어교사로 1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작년 비전을 품고 대국 유학을 결정하신 바 있다. 현재 로리 선생님은 미국 Eastern Mennonite University 에서 갈등해결학이 일컫던 '갈등선학'을 수학하시고 계시다.

그리곤 생물에게
이 글로 여러분과 연결될 때 즈음엔 겨울학 기쁘고? 세계 생물은 1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일삼 그 지켜왔는데 생물이 아닌 고, 일(일)일상적인 공간에서 봄, 여름, 가을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계절을 기다리고 있네요.

제가 있는 곳은 버지니아 주 헤리슨버그입니다. 버지니아 주는 미국에서 역사, 정치적으로 보수적이지만 헤리슨버그라는 도시는 기독교 문화유산이 많은 예노니아이트들이 18세기부터 정착해서 자리잡고 정착적으로 남인과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다양한 민족이 거주해, 타자성에 개방적이고 사회경제에 관심이 많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곳입니다. 작년 도시지정(전철)은 달인일 없고, 버스도 오차 6시까지 1시간에 한 대씩 운행하고요, 제 주 교통수단은 자전거(여) James Madison University라는 규모가 제법 큰 국립종합대학이 있어 활기가 넘칩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곳은 Eastern Mennonite University로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악인' 기독교 사립학교입니다. 학교에서 가을학기 첫 수업 때와 지난 주 개교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려야 학교의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생물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양성 교육이 가져올 수 있고, 매가서 6장 8장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경외를 세상에 실현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생물과 살아 있어서요. 제 전공인 갈등선학(Conflict Transformation) 역시 비주류 학문입니다. 2차 세계 이후, 전쟁에 대한 반성으로 사주권을 중심으로 갈등해결학(Conflict Resolution)이 탄생합니다. 20여년이 훌쩍 후,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갈등해결학에 대한 대안으로 관계회복, 성장과 정의, 갈등의 뿌리인 사회구조 변화에 초점을 둔 갈등선학이 이 학교에서 생기기 돼요. 여전히 학계나 대중에게는 비주류인 전공이고, 앞으로든 긴 시간동안 그럴 것 같습니다. 대학학교교사와 석사진공, 이 두 지점에서 후퇴하지는 게 삶의 이야기 할 줄기-비주류- 라는 색깔을 발견하게 됩니다.



▲ 빛을 오근목에서 4학년 안근경 선생님 동거들과 학기 첫 주에 찍은 단체사진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외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공부하고, 제 전공인 교육이 아닌 다른 학문 언어로 지적세계를 넓히기며 세상을 알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계 각지(예컨대, 웨스트사하라, 초자아, 마세도니아, 아프리카나사탄에서 온 동거들과 역사, 사회, 문화적으로 상이한 외국에서 배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보고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혹은 공동체를 깊어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시간이 제 삶에 주님이 주신 큰 선물임을 알게요. 감사하여 언제나 희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외국인으로 한 곳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제게 많은 배움을 줍니다. 여행자의 시각에서 보냈고 다른 것을 한 번씩 열어가서 관찰할 때 짜릿한 상상적 순간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30년 넘게,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통영인, 무엇보다 한국인이거는 제 정체성이 이곳에서는 큰 의미를 줍니다. 남북의 건강 관계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였지만 인디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제 생각을 묻습니다. 두껍고 복잡한 잠재의식 가운데 이뤄두었던 남북의 평화 없음이 이곳, 외국에서는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남북관계의 회복의 주체는 나이고 우리임을 더욱 느끼게 되고요.



▲ 학교 100주년을 맞아 임시 기증된 조형물, '말을 저서 보습으로' - 이 작품엔 실제 종이 사용되었다. 예술가는 '몸을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들'에게 100원(한화 11만 원 상당)을 주겠다고 공표했고 일주일 동안 3000개의 종이 모였다. 경향로부터 6000개의 송을 건네 받았다고 한다.

은 아침 전체모임이 끝나는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3시간 50분 가량 진행되어 점심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다. 자갈밭에는 11학년 오미경이 작곡, 김광, 지스스리, 봉어현, 오지현 준비했으며 샌드워치와 소시지도 판매 예정이다.

생물 문화 축제

올해의 모의점



※ 주최측 사정으로 장소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축제 준비부에서 배포하는 책자를 확인해 주세요.

생물 밖, 생물 이야기 #2

생물 1기 졸업생 이한솔 선배님과의 인터뷰

상학동에 자리 잡은 지 어느덧 3년이 되었고, 새 건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생물. 신문부의 창설을 기념해 경자-만고-상학동의 생물까지 모두 경험해보신 '생물의 첫 생지기' 이한솔 선배와의 인터뷰이다.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신 선배님께 감사사를 전한다.



▲ 이한솔 선배

1. 첫 생지기로서의 기억, 또는 마음가짐이 어떠셨나요?

제가 생지기로 흥행을 택하는 생지기 선배와 전교생의 목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각 반마다 청지기를 정하고, 회고학년(당시 11학년)의 청지기를 중에서 생지기를 결정하는 방식이었어요. 결정은 청지기들이 함께 모여 눈을 감고 거수를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됐고요. 회고를 위해 데 갈, 데 맞치게, 대 흥행이 활동할 수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청지기로 뽑힌 것과 생지기로 뽑힌 것 모두 저에게는 감사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게 와서 생각해보면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하나님께 저를 잘 과분한 자리에 임명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셨으니 나 다른 친구들을 두고도 나를 세워 주셨겠구나'는 생각을 가지고 감히한 마음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남자 생지기를 맡았던 친구와 각반의 청지기 친구들과 구성된 존존한 울트라 학생회, 그리고 항상 큰 힘을 더해 도와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그 감사의 마음을 오래 오래 공까지 성취를 구하게 수 있었어요. 학교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해주시는 일들에 비하면 작고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친구들과 모두 함께 학업을 만들고, 캠프인을 진행하고, 행사를 기획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보람되고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2. 생물은 현재 17살(21)이후 학년인 16살(중3)부터는 반교 생물을 경험해 보지 못한 학생이 거의 다인데도, 그들의 생물의 추억 또는 예시도들을 알려주세요!

여기에 대한 정말 눈을 뜨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예시도드가 많아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요... ^^ 생물은 반교 이전에 경자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반교도 임대 건물이었고 운동장이 없었고 그등학교는 급식실마저 다른 건물에 있었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풍자에 사임어요. 반교보다 훨씬 협소한 공간 안에서 학교가 시작되었는데, 실내 체육관으로 쓰이던 소강당과 한 구석에 피다리를 세워놓은 그릇을 고실 삼아 모든 수업을 발단 반도 있었고, 자학의 공장이 된 교실에서 수업을 발단 반도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생활하던 1,2기가 지금의 생물학교 건물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감격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같었고, 벅차올랐고, 행복했고, 감사했고... 지금 생물을 다니고 있는 친구를 역시 알았던 건 어 무 것도 없다는 걸 기억하고 감사했어요. 매일 매일을 살아가는 생물인들에게 기도해요. 믿음의 동을 보여줘 살기로 가르쳐주시는 귀한 선배님들이 계시고, 그 배움을 지지해주시고 기도으로 응원해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 모든 일상이 안전하고 온전하게 담길 수 있는 공간에 있다는 건 정말 말할 나위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3.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언제가 가장 좋았던 기억으로 남으시나요?

정말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지나기지만, 가장 좋았던 때를 하나만 꼽아보려면 국토순례를 얘기하고 싶어요. 당시에는 걷고 걷고 또 걷느라 밤에 감각이 없어지고 눈앞이 새하얗게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렇게 몇 년 간 국토순례에 참가하다보니 어느새 내가 걸어온 길만큼 내 생리의 절름과 배설의 절름도 차차차로 알아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요. 배움으로 견고, 절름으로 배우는 국토순례의 여정이 생물의 여러 가지 특별한 가운데 특히 더 빛나는 한 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사불란의 발자국을 밟는 것으로 뒷사람이 밟발을 발자국을 새겨며, 주고받는 용된 속에 걸어가는 동행의 길이 저는 평생토록 기억해 남을 것 같아요.

4. 진로는 어떻게 정하셨나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국어를 좋아했어요. 시나 소설을 배우는 문학도 좋아했고, 문법을 배우는 국어학도 좋아했어요. 그에 못지않게 미술 역시 좋아했고요.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미술은 사시문을 하면서 미술로 진학을 할지말지 고민했지만, 역시 국어가 좋았다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릴 때 평생을 하고 싶을 것 같을까?' 하고요. 지켜봐서 남아서 그림을 그리고, 문장 냄새를 맡고, 내가 그런 그림을 선생님과 친구들이 좋아해주고, 오면 게 행복하고 즐거워지만 어릴 때 평생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국어는 어떻게 생각해보려고요. 시를 쓰는 문법을 연구하든, 내가 이 학문을 깨달았을 때에 평생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모든 평생을 국어공부학과 문예 창작학과에 낚았어요. 지금은 국어공부학과에 다니고 있고요. 저도 선생님들께 배워서 알게 된 기운인데도, 내가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하나님께서도 행복해하실 일을 할 수 있을지 믿지는 내가 이 진로를 어땀을 위해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고통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16:9)'라는 말씀처럼, 매일매일 찾아오는 목요일간 속에서, 하나님께 목소리를 듣고 어쭙봐도 대답을 기다릴 줄 아는 생물인 어기를 기도해요.

5. 현재 수능을 앞둔 고3에게 하고 싶은 말!

고생 많았어요. 남들이 보고 있을 때에도, 보지 않을 때에도, 공부하느라 혹은 공부하러 노락하느라 정말 고생했어요. 공부할 하는 것도, 공부할 해야 한다는 압박에 순응하는 것도, 모두 아주 힘들고 버거운 일이라는 걸 잘 알아요. 살면서 생어에 할 수 많은 일을 총여 여마 전 번째로 가장 큰 일을 넣고 있는 총일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넘어야 할 또 다른 큰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겁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분명 잘 한 채 고3으로 살아온, 고3이라는 큰 일을 넘어가면 이제 지금의 이 근교도로 다음에 찾아온 큰 일 역시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번의 큰 일은 조금 더 자한 근력으로도 조금 더 거너려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 손잡고 걸어가는 길을 배우는 것 건 회개하기를 기도할게요. 잠21:31의 말씀처럼, 싸울 날을 위해 평생을 예비하세요. 하나님께 승리를 주실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 안에서 안전하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 고3들 모두모두 파이팅!

생물에서와 같은 일종의 친구들을 만나는 일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 준비하며 같이 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평생의 자산이 되고 싶어요. 생물 안에서 겪은 우정을 예뻐게 살아가고, 그 우정이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이어지기를 바라요.

생물일보 창간호를 내면서 생물일보의 창간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수능특별호를 내지 꼭 6일만입니다.

저희 신문부에게 창간호는, 누군가는 물가에 내 놓은 어린애 같기도 한, 무척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갖습니다. 창간호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었습니다. 사투는 흔적이 신문 여기저기에 있지만, 저에게는 창간호가 앞으로 만들 그 어떤 신문보다도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생물의 학생들을 위한 신문을 만들 생각입니다. 생물인과 생물인 사이의 틈을 꼭 메워 생각합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간호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지혜 기자
생물일보 담당
양지혜 기자 / 그림 제작